

**동방 정교회 카톨릭 개신교 기독교의 차이: 소아시아 그리스 성지 순례 여행**  
성경말씀: 마16:18

2023년 11월 8일부터 18일까지 52명이 10박 11일, 소아시아, 그리스 사도 바울 선교 여정, 사도 요한의 사역지 에베소를 포함하여 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따라가는 여행, 전체적으로 3,000킬로미터 정도 버스로 이동하며 넓은 지역을 구경함 (\*), 아테네, 고린도, 빌립보, 갑바도기아, 이스탄불 지금까지 우리는 대개 천주교와 개신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대다수 성도들이 이번에 그리스와 터키에서 만난 그리스 정교회 혹은 동방 정교회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우리는 여러 동방 정교회 방문, 사제들, 수녀들(\*), (\*), (\*)

마치 구약 시대 제사장 같은 모습, 수도원도 보았다.

그리스 메테오라 수도원(\*), (\*), (\*)

터키 갑바도기아 괴레메 지역의 동방 정교회, 수도원들(\*), (\*), (\*), (\*), (\*)

우크라이나 정교회(\*), (\*), (\*), (\*)

카톨릭 교회와 대단히 유사하다.

위키 백과 , List of Christian denominations by number of members

기독교계: 23-26억

로마 카톨릭: 13억 4천만, 동방 정교회 2억 2천만, 개신교: 8-10억

로마 카톨릭, 동방 정교회, 자, 1.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세우려 하신 교회인가? 12제자들과 사도 바울이 세우려던 교회인가?

2. 그곳에 구원이 있을까? 오늘 < >, 이왕 지구상에 태어났고 교회에 다니니 동방 정교회, 카톨릭, 개신교, 기독교의 차이를 정확히 아는 것이 필요하다. 교회란 무엇인가?

그래야 성지 순례를 가도 문제가 없다.

여러 성도들의 질문: 에베소, 사데, 필라델피아, 고린도, 빌립보에 있는 이전 교회 터 등을 방문하면 이곳이 정말로 사도 바울, 요한이 세운 교회인가?

답: 1세기 사도들이 세운 교회는 대부분 가정 교회이고 지금 교회 터 등이 남아 있는 것은 대개 313년 콘스탄틴 대제의 기독교 공인 이후 세워진 세속 교회들의 잔재이다.

예를 들어 콘스탄티노플의 성 소피아 교회(아야 소피아), 지금은 이슬람의 모스크(\*), (\*), (\*), (\*) 동로마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의 명으로 532-537년까지 약 6년에 걸쳐 건설되어 537년 12월 27일부터 공식 예배당으로 사용되며 정교회의 총본산 역할을 하였다. 1453년 오스만 제국의 군주 메흐메트 2세가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켜 동로마 제국을 멸망시키 뒤 이슬람 모스크로 개조되어 사용되었다. 이슬람 첨탑 미너렛(minaret)도 그 이후에 첨가됨, 1923년, 케말 파샤의 세속화 국가 선언, 터키 공화국, 1935년 2월 1일 박물관으로서 개방되고 회칠에 가려졌던 정교회 성화가 일부 복구되었다. 그러나 2020년 7월 10일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의 행정 명령으로 같은 달 24일에 박물관에서 이슬람 모스크로 재전환되었다.

아야 소피아는 당시 세워진 그 어떠한 건축물보다도 광대한 실내 공간을 가진 건물, 돔의 직경만 하더라도 31.2m, 높이가 56미터, 길이 81m, 너비 72m, 내부 1,767평, 엄청난 규모

우리는 삼국시대, 정말 대단한 문명, 건축

이것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가? 혹은 교회 건물인가?

그리스, 국교가 없지만 인구의 95% 이상이 그리스 정교회 교인이라고 말한다.

확실한 사실, 그리스 정교회 특징: 교인이라고는 말하지만 믿음 생활이 전혀 없다.

가이드의 말: 아직 구약 시대, 국가에서 봉급을 받는 사제들이 매일 예배를 드린다. 주로 400년경 콘스탄티노플 대주교였던 성인 크리소스톰의 설교문을 몇 시간 동안 읽는다. 교인들이 하는 일: 별로 없다. 사제들이 그들을 대신해서 매일 예배를 드려 준다. 성탄절 등 종교 축제일에만 얼굴을 내미는 사람들이 많다. 러시아 정교회, 세르비아 정교회 등은 성탄절도 12월 25일이 아니라 1월 7일로 지킨다. 차이: 우리는 1582년부터 그레고리안 달력 사용, 그러나 러시아 정교회 등은 율리우스 달력 사용

여하튼 1. 동방 정교회와 2. 서방 카톨릭 교회 3. 그리고 서방 카톨릭 교회에서 분리된 프로테스탄트는 믿음과 실행 면에서 비슷한 점이 많다. 뿌리가 같아서 침례교회 등은 이런 데서 나오지 않았다. 무슨 차이가 있을까?

이번에 터키를 여행하였다. 이슬람 국가, 98% 이슬람 교도

그런데 우리가 가서 보는 모든 유적들은 로마 시대 유적, 정확하게는 동로마 시대 유적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 도시들, 요한의 일곱 교회 등 모두 로마 제국의 도시들 로마 제국: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신성로마제국 등 4종류, 차이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마지막: 동방 정교회, 카톨릭 교회에도 구원이 있을까? 개신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님이 세우시려는 교회, 마16:18,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 교회 혹은 믿음 체계 크리스티교, 한자로 기독교, 그러면 동방 정교회, 카톨릭 교회도 기독교인가? 개신교와의 차이는 무엇인가? 성경의 기독교, 교회란 무엇인가?

### 교회란 무엇인가?

구약 시대에는 교회가 없었다. 마16:18, I will build my church. (\*) 미래

따라서 구약 시대에 교회가 있었던 등을 말하면 안 된다.

우리가 말하는 교회는 신약 시대,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날 세상에 모습을 드러냄(출생)

교회: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이 교회다.

에베소 교회: 건물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 백성이 된 사람들

고린도, 골로새, 빌립보, 데살로니가, 서머나, 필라델피아 모두

그러므로 성지 순례 여행에서 사도 바울 당시의 교회 터를 찾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모두 종교인들이 만들어 놓은 잔재들

### 교회사란 무엇인가?

신학교에서 배우는 교회사, 세상의 많은 책들이 말하는 교회사란 무엇인가? 이것이 진짜 교회사일까? 이 시점에서 우리는 교회가 어떻게 변천해 갔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

카톨릭 교회, 동방 정교회 같은 형태의 교회: 구약식 교회

예수님이나 열두 사도. 바울은 결코 이런 교회를 세우려 하지 않았다.

교회사 선도(\*)

1. AD 30년 교회 시작(빨간색 맨 위)

사도 바울, 12 사도의 선교, 로마 제국 전역에 교회가 세워짐(사람들의 모임)

네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박해, 당연히 처음에는 다 집 교회, 건물 교회 불가능

2. 313년 콘스탄틴 대제, 기독교 공인, 교회교가 시작됨(자주색 맨 아래)

세상과 교회,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기 시작함

이때부터 15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까지의 역사는 눈에 드러나는 종교인들의 역사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말하고 가르치는 교회사이다. 개신교 천주교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역사

3. 기독교(빨간색 맨 위): 좁은 길로 순교의 길을 가면서 신약 성경의 믿음을 지킨 사람들의 역사; 참된 교회사, 이것은 지상에는 기록이 거의 미미하다. 하늘에만 기록되어 있다. 교회교 사람들의 박해와 탄압으로 이들은 대개 이단이라 불렸고 거의 박멸되어 역사의 기록이 거의 없다.

### 공교회 이야기

콘스탄틴 대제 이후, 테오도시우스가 379년부터 395년까지 로마 황제로 세상을 다스림

그는 AD 380년 세례를 받고 니케아 신경을 신봉함(전통적인 삼위일체 신앙으로 알려짐)

테오도시우스는 제국 내에서 신앙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 열성적으로 노력했고 380년 2월 28일 병에서

회복되자마자 교회 당국자들에게 아무런 자문도 구하지 않고 모든 시민들이 니케아 신경을 신봉해야 한다고 규정한 칙령을 발표했다. 이것이 기독교를 국교화한 것이다.

이때부터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설을 믿는 사람들만 보편적 기독교인(카톨릭)으로 인정되었다.

카톨릭이라는 호칭이 문서에 등장한 것은 이때가 처음이었다. 위키백과: 테오도시우스 1세 편 즉 카톨릭 교회, 공교회, 공의회 결정 특히 니케아 신경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의 모임

### 위키백과 공교회편

공교회는 보편 교회라고도 불린다. 말 그대로 그리스어 카톨릭케를 문자 그대로 의미하는 교회를 뜻한다.

#### 콘스탄틴 기독교 공인 이후 등장한 국가 교회 혹은 교회 국가

공교회(公敎會, 고대 그리스어: ἐκκλησια καθολικη 에클레시아 카톨릭케[\*]) 또는 보편 교회(普遍敎會) [주 1]라고도 한다. (\*)

이는 공교회주의(公敎會主義) 또는 보편교회주의(普遍敎會主義)를 따르는 교회의 개념으로, 기독교에서 사도들의 전통인 신구약 성경과 초대교회 지침인 니케아 신경, 니케아-콘스탄티노플 신경을 따르는 교회 전체로, 즉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의 교회를 지칭한다.

이는 하나의 교회, 즉 교회의 동방 전통을 따르는 정교회와 서방 전통을 따르는 천주교회와 거기서 나온 개신교를 아우르는 모든 교회의 하나 됨을 지칭하는 의미로 서방과 동방교회의 분열이 있었던 11세기 이전의 교회의 신학적, 역사적 전통을 중요하게 여긴다. (\*)

#### 공교회(파란색)가 있고 침례교회처럼 공교회가 아닌 교회가 있다(빨간색).

로마 가톨릭교회에서 주장하는 '로마가톨릭주의', 즉 '천주교주의'는 토마스 아퀴나스(1224-1274)의 사상과 철학인 토미즘이 등장한 13세기 이후에 주장되는 것으로 원래의 공교회 개념과는 별개의 개념이다.

공교회주의자들은 일곱 개의 공의회를 신봉한다. (\*), 모두 동로마 제국에서 열림

제1차 니케아 공회(325년)로부터 제2차 니케아 공의회(787년)에 이르는 기간을 종종 "일곱 공의회 기간"이라고 부른다. 이 공의회들은 동로마제국 황제가 소집 명령을 내렸고,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 대주교/대감독이 의장이었으며, 신약성경 언어인 코이네 그리스어(헬라어)로 진행되고,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을 작성하였다.

공교회는 황제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교회, 콘스탄틴 포함 대다수 황제는 불신자

#### 황제들은 정치적 안정을 위해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함

1차 니케아 공회: 325년 로마황제 콘스탄틴에 의해서 소집되고, 여러 곳에서 주교 318명이 참가했다.

여기서는 아리우스 주의 배격(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물이다)

아타나시우스 정통 삼위일체 교리 정립, 니케아 신경

에베소 공회(431년): 사람으로서의 예수와 신으로서의 예수를 구분한 네스토리우스주의를 배격하였다.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로 규정함

칼케돈 공의회 (451년): 예수에게는 신성 밖에 없었다는 단성론을 배격하고, 예수는 "참 하나님이자,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라는 칼케돈 신조를 작성하였다.

#### 엄밀한 의미의 공교회, 보편 교회:

콘스탄틴의 기독교 공인 시절부터 서방과 동방교회의 분열이 있었던 11세기 이전의 교회, 즉 AD 313년 기독교 공인부터 1054년 서방 교회, 동방 교회 분열까지(\*)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교회: 공교회주의는 로마제국의 기독교 공인과 관련된다. 313년 기독교를 로마제국의 교회로 공인한 황제 콘스탄티누스는 수도를 로마에서 콘스탄티노플(그리스 이름 비잔티움, 지금의 이스탄불)로 천도할 계획을 추진했다.

새로운 제국의 종교로 기독교를 공인했고,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하는 총 5개의 대교구를 구상했다.

콘스탄티노플, 로마, 예루살렘, 안티오키아, 알렉산드리아의 5개 대교구의 교회를 구성하고 각 지역을 관장할 대감독(대주교)을 선출하였다. (\*)

현실 교회의 구조인 5개 대교구의 교회는 실제로는 하나의 교회이며 단지 지역을 5개로 구분한 것이라고 여긴 것이 공교회주의의 시작이다.

교회에 이단이나 다양한 신학사조가 등장하기도 했으나 11세기까지 로마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중심으로 지역적 협업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의 교회를 유지하였다.

지금도 정교회 총본부는 이슬람 국가 도시인 이스탄불(구 콘스탄티노플)에 있다.

동일한 신학체계와 동일한 구조, 동일한 예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지역적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의 신조 아래에 있는 교회였다. 이러한 교회의 신학적, 구조적 일치는 기독교회의 자랑이며 잠재적 문제이기도 했다.

특징과 언어 문제제 : 공교회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신약성경이 쓰인 고대 그리스어인 코이네 그리스어, 즉 헬라어를 신학용어와 교회용어로 사용하였다. 1세기 무렵에 라틴어는 이탈리아 반도 지역에 한정되었으나 헬라어는 그 외 로마제국 전역에서 사용하는 공용어였으며, 330년 콘스탄티노플 천도 이후에는 로마제국, 즉 동로마 제국의 공용어는 헬라어가 되었다. 헬라어는 콘스탄티노플, 예루살렘, 안티오키아 및 알렉산드리아 일부 지역에서는 환영할 일상 언어였지만(2-4번), 라틴어를 사용하던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일부 지역에서는 어려운 외국 언어였다. 점차 세월이 흐르며, 헬라어의 라틴어 번역상 문제나 언어로 인한 문화 차이는 신학과 신학 이해의 차이를 가져왔고 공교회주의의 잠재적 분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언어 분쟁 및 분열: 필리오케 논쟁

이들의 믿음 고백: 니케안 신경, 여기서 사도신경이 나옴, (\*)

과연 우리는 거룩한 카톨릭 교회를 믿는가? 이것이 바로 313년부터의 공교회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 예배 때 사도신경을 외우는 교회는 공교회 개념이 가득한 교회, 천주교, 개신교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단 판정의 기준: 사도 신경을 외우냐, 외우지 않느냐  
전 세계 모든 침례교회 등: 사도신경을 외우지 않는다. 공교회 개념이 없는 교회(\*)

#### 동로마 서로마 분열

395년, 테오도시우스 사망

장남 아르카디우스를 제국 동부의 황제로, 차남 호노리우스를 서부 지역의 황제로 임명함(\*)

서부는 이탈리아 로마

동부는 그리스, 터키, 팔레스타인, 시리아, 이집트 등

5대 교구 중 로마를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동로마 제국에 속함

서로마제국: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할된 395년부터 476년까지 서방 황제의 치하로 존속한 로마 제국의 연속체로 공식 국호는 이전과 같은 로마 제국(라틴어: Imperium Romanum)이다. 동시기에 함께 분할되어 1453년까지 존속했던 동로마 제국과 달리 서로마 제국은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야만족들의 침입과 내분으로 쇠퇴하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476년에 마지막 황제 로물루스 아우구스투스가 친위대장 오도아케르(게르만족 군사령관)에게 강제퇴위당하며 멸망하였다.

수도는 밀라노(395-402), 라벤나(402-476년)

유산: 로마 카톨릭 교회와 교황의 등장, 그리스도의 대리자,

로마 교회로 처음으로 개종한 야만족 국왕은 프랑크족의 클로비스 1세(481-511년)이며 나중에는 서고트족도 로마 교황의 권위를 빌리기 위하여 교회에게 충성을 맹세하였다.

#### 프랑크 왕국

게르만족의 일파인 프랑크족이 세운 나라. 중세 초에 서유럽과 중부유럽을 거의 통일했던 나라이자 오늘날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기원이 되는 국가이다. 이것은 신성 로마 제국의 기원이 되었다.

교황의 권위는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었는데, 특히 레오 3세가 주후 800년 프랑크 제국의 왕 샤를마뉴(프랑스어)(라틴어는 카를루스) 대제에게 서로마 황제의 관을 씌워주면서 그 정점을 찍었다. 다만 이 행위는 당시 유일한 로마 제국 황제를 자처하던 동로마 제국의 격분을 불러왔으며 동유럽과 서유럽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는 계기를 낳았다.

처음에 이 제국은 그냥 로마 제국으로 불리다가 1157년 신성로마제국이라 불리기 시작함

프랑스의 계몽 사상이 볼테르는 신성 로마 제국에 대해 다음과 같은 유명한 문구를 남겼다:

스스로 신성 로마 제국이라 칭하였고 아직도 칭하고 있는 이 나라는 딱히 신성하지도 않고 로마도 아니며 제국도 아니다.[f][26]

레오 3세는 직후 유럽의 그 어떠한 황제도 교황의 인정 없이는 즉위할 수 없다고 못 박았고 바티칸 시국의 최고 권력자로서 이탈리아 중부에 방대한 크기의 교황령을 설치하고 오랫동안 스스로 통치하였다. 교황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기 전부터 이미 '폰티팩스 막시무스', (\*) 즉 로마의 전통적인 최고 종교 지도자의 직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심지어 현대에까지 이 직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 칭호는 유럽에서 가장 영예로운 칭호들 중 하나로, 이 영예를 누렸던 사람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들 중에는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있다.

### 로마 제국, 서로마 동로마, 신성로마제국

로마 제국: 로마 제국(라틴어: Imperium Romanum 임페리움 로마눔[\*] 코이네 그리스어: Βασιλεία τῶν Ῥωμαίων)은 지중해를 중심으로 유럽, 북아프리카, 서아시아 등지를 다스린 보편 제국이다. 로마 제국은 기원전 27년 아우구스투스(옥타비아누스, 주전63-주후 14년)가 사실상 공화정을 폐지하면서 등장하였다.

누가복음 1장, 예수님의 탄생 예고, 2장 예수님 탄생

2장 1절: 그 당시에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가 칙령을 내려 온 세상이 조세 등록을 하게 하였는데 (2:2) (이 조세 등록은 구레뇨가 시리아의 총독이었을 때 처음 한 것이더라.)

(2:3) 모든 사람들이 조세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도시로 가매

처음에는 이탈리아 반도의 로마를 유일한 수도로 두고 있었다.

그 뒤 콘스탄틴 시대, 330년 수도 이전 콘스탄티노플 시대

테오도시우스 황제 사후 395년 동로마 서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 476년 멸망, 동로마 제국: 1453년 멸망, 동서로마 분열 이후 로마 제국은 그냥 동로마 제국으로 보면 된다. 그리스, 터키, 시리아 등 모두 포함, 그러므로 그리스 터키 여행을 가면 로마 제국, 동로마 제국의 유물을 볼 수 있다.

서로마 제국 멸망 이후 그 지역에서 프랑크 왕국, 동로마를 견제하기 위해 교황이 신성로마제국이라 부름

### 동방 정교회 이름

로마 교구, 주교, 교황, 본인들만이 카톨릭 교회 주장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에 있던 나머지 4교구, 우리가 정통이고 너희는 이단 사이비이다. (\*)

### 동방 정교회, 카톨릭 교회 구원

기독교 교회교 그림(\*)

동방 정교회, 카톨릭 교회(맨 밑 파란색): 구약식 교회, 예수님의 단번 속죄 부인, 제사장 체계, 믿음+ 행위 구원, 따라서 성경에 의거해서 판단을 내리면 그 체계대로 믿으면 성경적 구원은 불가능하다. 이스라엘 대체 신학, 무천년주의

개신교회의 문제(노란색): 오직 믿음으로, 구원 OK

그러나 천주교(사방 교회)의 잔재들이 수두룩하다.

공교회 개념, WCC, ECT, 종교 통합 가능성이 매우 크다.

로마 교황과 동방 정교회 수장의 종교 일치 만남, 2021년 12월 (\*)

성경적 기독교(맨 위 빨간색): 좁은 길로 걸어간 사람들, 세상 교회사에 별로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공교회에 의해 탄압받은 사람들

### 왜 터키 그리스 성지 순례를 가는가?

사도 바울, 요한 당시의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지리를 살펴보기 위해

당시의 이교도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그래야 사도행전 이후의 성경 기록들을 훨씬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선교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매우 필요하고 중요하다.

터키 땅의 에베소, 지금은 폐허, 당시 세계 5대 도시, 인구가 25만-30만

에베소에는 세계 7대 불가사의 다이애나 신전, 아르테미스 신전 (\*), (\*)

에베소서 사도행전 이해

사도행전 19장 데메드리오의 선동, 에베소 사람들의 분개, 백성들이 모인 극장으로 끌고 들어가려 함

“위대하시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다이애나여”(19:34), 19:31의 극장

그런 극장이 복원되어 있다. 25,000석 (\*)

고린도, 아테네, 빌립보, 네아폴리스 등 여러 곳을 보며 예수님과 그의 신실한 종들을 생각한다.

예수님의 신약 교회를 바로 아는 계기, 선교의 과정 이해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믿음 생활 하자.